

27일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금리	환율
5638.34 (+168.87)	743.83 (+16.62)	3.758 (-0.031)	1325.15 (+2.05)

JY, 최대 실적에도 투자·책임경영 ‘집중’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취임 4주년, 기념행사 없이 통상적 내부 경영현안 챙겨 내달 정기인사·조직개편 집중

이재용 삼성전자회장(사진)이 ‘취임 4주년’에도 조용한 행보를 이어갔다. 별도의 기념행사나 메시지 없이 조용한 행보를 이어가는 가운데 다음달 정기 인사와 조직 개편을 비롯한 중장기 경영 구상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취임 4주년에도 별도 행사 없이 통상적인 경영 일정을 소화했다. 취임 이후 매년 기념행사를 열거나 별도의 경영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던 만큼 올해도 대외 행보보다는 내부 경영 현안과 내년 사업 전



락을 점검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회장은 취임 이후 지난 4년간 반도체 업황 악화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속에서도 기술 투자를 이어가며 경영 정상화에 집중했다.

그 결과 삼성전자는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반도체 수요 증가와 메모리 업황 회복이 맞물리면서 실적 반등을 이끌었다. 올해 3분기에는 연결 기준 매출 195조 원, 영업이익 107조4000억원의 잠정 실적을 기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성과를 거뒀다.

이 회장은 미래를 겨냥한 투자도 단행했다. 삼성전자는 연구개발과 시설 투자에 지속적으로 자금을 투입하며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차세대D램 등 AI 시대 핵심 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여기에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해 글로벌 빅테크 수장들과 협력을 확대하며 AI 반도체 생태계에서 삼성전자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도 공을 들였다. 로봇과 전장, 바이오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기 위한 인수합병(M&A)과 신규 투자 역시 중장기 성장 전략의 한 축으로 꼽힌다. 다만 삼성전자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체질 개선을 통한 내부 갈등 해소가 선결 과제라

는 지적도 나온다. 반도체(DS)와 다바이스경험(DX) 부문 사이에 성과급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면서 조직 내 긴장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회장의 책임경영 강화도 과제로 거론되고 있다. 등기임원 복귀를 통해 경영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인사와 투자 전략에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할지도 관심사다. 취임 4주년을 맞은 이 회장이 실적 반등을 넘어 AI 시대의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고 ‘원 삼성’의 결속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社告

메트로경제 ‘2026 에너지인프라 포럼’

글로벌 에너지경쟁 우위 확보 해법

인공지능(AI) 시대, 에너지는 국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생산시설 확대 등에 따라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송전망 확충, 발전원 다변화 등이 국가적 과제가 됐습니다.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요구에도 부응해야 합니다.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로운 활용부터 차세대 에너지 기술 확보, 공급망 고도화까지 풀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습니다. 에너지 안보와 경제성, 환경성을 함께 고려한 최적의 에너지믹스를 찾고, ‘초격차’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은 이러한 과제를 진단하고 전후방 산업의 미래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대체불가 K-에너지 : 초격차 기술력과 공급망 구축’을 주제로 ‘2026 에너지인프라 포럼’을 개최합니다. 정부와 산업계, 학·연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한민국이 글로벌 에너지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해법과 인사이트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행사명 : 2026 에너지인프라 포럼

◆주 제 : ‘대체불가 K-에너지’ : 초격차 기술력과 공급망 구축

◆일 시 : 2026년 11월 10일(화) 14:00~17:00

◆장 소 : 서울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 8간담회의실 211호

◆주 최 : 국회의원 안호영 의원실, 에너지경제연구원, 메트로미디어

◆후 원 :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문 의 : 2026 에너지인프라포럼 사무국 02)721-9818, e-메일 forum@metroseoul.co.kr



고리원전 3·4호기 운전 10년 연장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7일 고리원전 3·4호기의 계속운전 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고리 3호기(왼쪽 두번째)는 2034년 9월까지, 4호기(맨왼쪽)는 2035년 8월까지 수명이 연장된다. 사진은 고리원전 1~4호기 모습. 앞서 고리 1호기(맨 오른쪽)는 영구 정지 8년 만인 지난해 6월 해체가 결정됐고, 2호기(오른쪽 두번째)는 지난해 11월 계속운전이 승인돼 2033년 4월8일까지 수명이 연장됐다. <관련기사 2면>

/뉴스

실적 호조 삼전닉스, ‘120조 보따리’ 푼다

SK, 오늘 3분기 실적발표
영업익 70조 웃돌 것 예상
삼성, 내일 콘퍼런스를 진행
실적성장… 80조 환원 추정

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주주환원 확대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 증가에 힘입어 실적 개선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양사의 추가 주주환원 규모가 총 12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각각 오는 28일과 29일 3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콘퍼

런스를 진행한다. 시장에서는 양사의 실적뿐 아니라 향후 배당과 자사주 매입·소각 등 주주환원 정책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앞서 발표한 3분기 잠정 실적에서 영업이익 107조4000억원을 기록했다.SK하이닉스 역시 3분기 영업이익이 70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면서 양사의 실적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 같은 실적 개선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규모도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KB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추가 주주환원 규모가 각각 80조원과 4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삼성전자의 경우 2024~2026년 주주환원 진여 자원을 110조원으로 가정하면 현금배당 70조원과 자사주 소각 40조원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이 가운데 3분기 기준 확정된 현금배당 30조원을 제외하면 추가 환원 여력은 80조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2027~2029년 차기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나온다. KB증권은 기준과 동일하게 잉여현금흐름의 50%를 주주에게 환원하는 기준이 유지될 경우 환원 규모가 기존 140조원에서 약 600조원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SK하이닉스도 주주환원 강화 가능성이 거론된다. 회사는 최근

40조원 규모의 소각 목적 자사주 매입을 완료했다. KB증권은 SK하이닉스가 2025~2027년 잉여현금흐름의 50% 이상을 주주에게 환원한다는 정책에 따라 추가 자사주 매입·소각과 특별배당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구체적인 추가 환원 규모와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일본 카옥시 아 지분 매각 대금을 특별배당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과 관련해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차현정 기자 hyeon@



엔트로픽 IPO 소식에 ‘코스피 혼풍’

코스피 3.09% 오른 5638.34
하이닉스 5%, 삼성 4%대 반등

코스피가 5630선대로 올라섰다. 인공지능(AI)모델 ‘클로드’ 개발사인 엔트로픽의 기업공개(IPO) 소식에 반도체 투자 심리가 살아난 영향이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09% 오른 5638.34에 마감했다. 오전 한때 코스피 시장에 매수 사이드카프노드 램 매수호가 일시 효력장지도 발동했다. 해 코스피 시장의 매수 매도 사이드카프는 이날까지 각각 26회, 27회 발동했다. SK하이닉스는 5.18% 급등했고, 삼성전자는 4.23% 올랐다. 밤사이 미국 증시에서 인공지능(AI) 관련주가 반등하고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반도체 투자 심리가 살아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전날 뉴욕증시는 AI 기업 엔트로픽의 기업공개(IPO) 추진 소식 등에 힘입어 3대 지수가 나란히 상승했다. 나스닥지수는 약 0.8%, S&P500지수는 약 0.7% 올랐고, 엔비디아는 2.4% 상승했다.

엔트로픽은 26일(현지시간)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IPO를 위한 증권신고서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했다. 엔트로픽은 이번 IPO로 최대 2조달러(약 2700조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아 1000억달러(약 133조원)를 조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미 증시 데뷔 역대 최대 규모가 된다. 국내 증시에서 가장 직접적인 수혜주로 꼽히는 곳은 SK텔레콤이다.SK텔레콤은 2023년 엔트로픽에 1억달러를 투자한 초기 투자자다. 투자 당시 약 2%였던 지분율은 이후 엔트로픽이 대규모 신주를 발행하면서 0.3% 안팎으로 희석됐지만, SK텔레콤은 최근 엔트로픽의 시리즈B 투자에도 추가로 참여했다. 추가 투자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엔트로픽 상장을 두고 우려의 시선도 나온다. 국내 증시의 자금 이탈을 우려 주가를 하락시키고 원·달러 환율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메트로 한줄뉴스



▲ 국방부, 국방장관 “미군 믿을 수 있나” 발언 ‘신뢰강조 취지’ 수습 /사진 뉴시스
▲ 경찰, 한동훈 “딸 수사무마 의혹” 수사 지속… 고발인 “이유 밝혀야”

▲ 정청래 “비자 지연, 美 당국에 유감…정부 공격할 문제는 아니야”
▲ 윤상현 “오세훈과 만나 보수 구심점 역할 강조…계파 초월 리더쉽 당부”

▲ 홍준표, 정계 떠나 변호사로 복귀…‘구속위기’ 측근 변론 나서
▲ 박정하 “국힘 대다수가 反장동혁·非한동훈…오세훈으로 모일 것”